R&R 32(2023) 7-38 https://doi.org/10.36365/kukirs.2023..32.7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가?

최윤갑
(고신대학교, 조교수, 구약신학)

I. 들어가면서
II. 성경적 정의: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
III.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적방편
IV. 회복적 정의를 통한 시온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V. 나오면서: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초록]

본고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천착하고, 그 해석을 기반하여 성경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학자들이 주로 신약성경의 기독론에 근거해 회복적 정의를 지지해 왔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어, 구약성경 신학의 관점을 토대로 회복적 정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해석학적 어려움과 오해를 도출하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회복적 정의의 방편으로서 언약 백성의 회복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열방 선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도 있게 조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개의 중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하여, 성경적 정의가 보응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중, 어느 개념적 범주에 속하는지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술하는 이사야서 본문들(1:24-28, 10:5-11, 20-23, 19:23-25, 34:5-12, 52:13-53:12)을 중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의 양상과 목적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끝으로, 논자는 이사야서의 거대 구원의 담론(mega-salvation discourse)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온 백성의 회복과 열방 선교를 향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 논의는 성경에 기술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복적 정의, 이사야서, 보응적 정의, 시온의 회복, 열방의 선교

논문투고일 2023.07.21. / 심사완료일 2023.08.23. / 게재확정일 2023.09.05.

Ⅰ. 들어가면서

본고를 통해 논자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밀히 조망함으로써, 성경적 정의가 회복과 샬롬, 즉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어떤 이의 범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이 그/그녀의 궁극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법적 이념이다. 반면, 이 정의 개념과 대립을 이루는 보응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범법행위를 행한 자에게 응당한 응징을 시행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꾀한다는 사법 이념이다. 이와 같은 사법적 개념의 구도 속에서, 회복적 정의와 보응적 정의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다름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에 대한 해석이다. 사법적 처벌을 회복과 갱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또는 정당한 응징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의에 대한 이념이 달라진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지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법체계와 법학 관련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학자들-하워드 제어(Haward Zehr), 크리스 마샬(Chris Marshall), 게오프 브로톤(Geoff Broughton), 로레인 암스튜즈(Lorraine S. Amstutz), 게리 존스톤(Gerry Johnstone)과 데니엘 반 네스(Daniel W. Van Ness), 윤이실(Yoon I Sil)등-은 보응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주창하게 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신약성경의 해석에 기초해 회복적 정의의 근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1] 성경의 다양한 신학 사상이 법학과 사법체계의 원리 뿐 아니라

---

* 본 논문은 논자가 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www.imt.or.kr)가 주최한 제3회 선교적 성경해석학 컨퍼런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선교'(2022.11.1.)에서 발표한 논문을 새롭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임을 밝힙니다.

1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손진 역 (서울: 한국 아나뱁티스트 출판사, 2010); Chris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Intercourse: Good Books, 2005); Chris Marshall, *Beyond Retribution: A New Testament Vision for Justice, Crime and Punish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1); Geoff Broughton, "Restorative Justice: Opportunities for Christian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3 (2009), 299-318; Lorraine S. Amstutz, "Restorative Justice: the Promise and the Challenge," *Vision* 14 (2013), 24-30; Gerry Johnstone & Daniel W. Van Nes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Devon: Willan Publishing, 2007); Yoon I Sil, "The Impact of Theological Foundation

실천적 적용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경해석에 천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천착하고, 그 해석을 기반하여 성경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학자들이 주로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말씀, 죽음, 그리고 부활과 바울의 기독론에 근거해 회복적 정의를 지지해 왔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어, 구약성경 신학의 관점을 토대로 회복적 정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해석학적 어려움과 오해를 도출하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회복적 정의의 방편으로서 언약 백성의 회복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열방 선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도 있게 조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개의 중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하여, 성경적 정의가 보응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중, 어느 개념적 범주에 속하는지 논할 것이다. 이 부분은 회복적 정의의 요소들 뿐 아니라, 보응적 정의가 가진 개념적 약점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술하는 이사야서 본문들(1:24-28, 10:5-11, 20-23, 19:23-25, 34:5-12, 52:13-53:12)을 중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의 양상과 목적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끝으로, 논자는 이사야서의 거대 구원의 담론(mega-salvation discourse)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온 백성의 회복과 열방 선교를 향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II. 성경적 정의: 보응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

구약성경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미쉬파트(*mišpāṭ*)와

---

of Restorative Justice for Human Rights Protections of North Korean Stateless Women as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ological Studies* 75 (2019), 1-10.

제데카(*sᵉdāqâ*)이다. 이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구약성경뿐 아니라 선지서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아울러 폭넓은 의미장(semantic field)을 갖는다. 먼저, *mišpāt*(정의)는 구약성경에 425회, 그리고 선지서에서 147회 등장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내포한다: (1)중재를 통한 결정, 법률적 결정, (2)법률 소송, (3)법률적 요청, (4)순응 일치, (5)사회정의, (6)신적인 명령(율법). 반면, 한글성경에서 '공의'로도 번역되는 *제데카*(*sᵉdāqâ*)는 구약성경에 523회, 그리고 선지서에 81회 등장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장을 가진다: (1)흠 없는 행동과 정직, (2)(전존재의) 의, (3)(인간 재판관의) 정의, (4)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으로서의 공의, (5)(종교적인 태도로서의) 의와 경건, (6)(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의와 옳음, (7)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8)신뢰할만한 진리, (9)법률적 요청, (10)사회정의. 구약성경에서 많은 경우 정의와 공의는 함께 등장하여 어떤 존재의 행동 양식이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올바름, 공평함, 정직함, 신실함을 내포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전달한다: (1)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식(시 97:2; 98:9; 사 32:16-17), (2) 세상 왕들과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삼하 8:15; 왕상 10:10; 시 72:1-4), (3) 하나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의 양식(암 5:24; 사 5:7; 겔 18:5-9).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근본 본성을 내포한다.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하여 온 세상 만물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통치하신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세상의 왕과 지도자는 그들의 통치에 공의와 정의를 정당하게 구현함으로써, 세상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성취해야만 했다. 끝으로, 언약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경건한 삶을 위한 근본 원리로 삼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정의는 언약 백성의 삶의 다양한 영역-개인 삶의 영역, 공적 사회생활, 정치, 종교, 상업 등-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또는 성품)일 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삶에서 구현해야 할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2]

---

2 Broughton, "Restorative Justice: Opportunities for Christian Engagement," 313-314.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정의(justice)를 시행함으로써, 이 세상과 그의 백성의 범법 행위와 불의함을 시정하고, 그 잘못된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바로 잡아 그들 가운데 공의(righteousness)를 회복하셨다.[3] 즉, 공의의 개념과 함께, 성경적 정의는 '올바름,' '바른 자리매김,' 조금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만드는 것(making things right)'과 관계가 있다. 즉 그것은 잘못되고, 구부러지고, 부정한 것을 회복하는 회복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다.[4] 이런 관점에서, 성경적 정의의 영역을 심도 있게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의미론적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신적 방편 중 하나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행하신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세상과 언약 백성 가운데 보응적 정의를 이루는 보응적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회복적 정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편인가?

하나님의 진노, 분노, 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헤마*(*ḥēmâ*), *캐제프*(*qeṣep*), *자암*(*zaʿam*), 그리고 *아프*(*ʾap*)가 있다. *헤마*는 분노의 감정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상황, *캐제프*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모습, *자암*과 *아프*는 분노가 바람이 일어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묘사한다.[5]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은 '타는 불'과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의 행위, 특히 언약 백성의 범죄와 타락에 의해 촉발된 하나님의 태도에서 일어난 돌연한 변화로 인식되었다.[6]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은 구약성경에 기술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

---

3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11.

4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161.

5 분노와 관련하여 더욱 풍부한 단어들과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발터 아이히로트, 『구약성서신학 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88), 274-275를 참조하라.

6 발터 아이히로트, 『구약성서신학 I』, 283.

응적 정의로 해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발터 아이히로트(Walter Eichrodt)는 『구약성서신학 I』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범한 죄들에 대한 응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그 자신이 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진 불법에 대한 복수 또는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질투로 서술한 것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7]

많은 구약성경은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의 불순종과 범죄에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렸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8] 광야 여정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파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은 죽음의 형벌을 맞게 되었다(민 16:1-25). 오늘날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수레위에서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신 후, 그를 죽이셨다(삼하 6:1-11).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함을 자행하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향해, 불같은 진노를 발하시며, 그들이 피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을 예견하셨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불법과 불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징적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성경의 다양한 사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적 보응 내지는 응징의 측면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 진노와 심판을 보응적 정의를 성취하는 신적 방편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해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신학적 부조화와 미흡함을 발견하게

---

7 발터 아이히로트, 『구약성서신학 I』, 275.

8 언약 백성의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묘사하는 구약의 본문은 레 26:25, 민 31:3, 신 32:35, 41, 43, 시 94:1, 149:7, 사 34:8, 47:3, 61:2, 63:4, 렘 11:20, 20:12, 겔 25:12, 미 5:14 등이 있다. 반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질투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출 20:5, 34:14, 민 25:11, 수 24:19, 신 4:24, 6:15, 겔 5:13, 16:42, 23:25, 습 1:18 이방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질투로 묘사하는 구절은 사 42:13, 59:17, 겔 36:5, 6, 38:19, 습 3:8, 나 1:2 등이 있다.

된다. 특히 신학적인 면에서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약 백성과 열방을 향해 긍극적인 보응과 파멸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방식은 성경이 면면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성적 모습, 즉 그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구원하심, 위로와 부조화를 이룬다. 둘째, 성경 역사를 통해 비록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장차 성취하실 종말론적 구원, 위로, 새 창조를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백성의 범죄와 패역함을 향한 보응의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면, 성경이 기술하는 정의는 여전히 크나큰 신학적·해석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신학적·해석학적 미흡함을 고려하면서, 몇몇 학자들, 특히 하워드 제어(Haward Zehr)와 크리스 마샬(Chris Marshall)은 성경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성경적 정의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약 백성을 향한 보응적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샬롬(*šālôm*)을 성취한다는 회복적 차원에서 해석하게 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제어는 성경적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취로서 샬롬을 강조하였다. 그는 샬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샬롬은 단순한 주변적 테마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믿음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 믿음'으로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샬롬이라는 뿌리로부터 구원, 속죄, 용서,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샬롬이란 사물이 있어야 하는 대로 있는 '올바름'의 상태를 의미한다....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샬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립 없이 평화롭게 살아감을 의미한다.[9]

제어에게 있어, 샬롬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구속, 그리고 정의를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해석학적 틀(framework)로서 작용한다. 샬롬은 어떤

9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155-156.

사람이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나아가, 이와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할 샬롬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모델과 힘은 다름 아닌 언약 개념에 있다.[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개념에 명시된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샬롬의 상태를 진척시켜 나가야만 했다. 지오프 브로흐톤(Geoff Broughton)에 의하면, 제어가 성경적 정의를 샬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것은 형사법적 정의(criminal justice)와 성경적 정의(biblical justice)를 본질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의 형사법적 정의가 보응적이라면, 성경적 정의는 회복적이다."[11]

성경적 정의를 회복의 관점에서 설명한 후, 제어는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을 다시 샬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미가서 7:18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해, 제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구약에서는 응보도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샬롬의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 형벌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정의를 이루는 사법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고...이러한 샬롬의 맥락은 응보적 잠재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한다...형벌은 영속적인 소외가 아니라 궁극적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으므로, 회복적이었지 파괴적이지 않았다.[12]

샬롬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새로운 관점, 즉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구속하고, 화해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적 의도를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을 영위해 가는 언약 백성에게 구원, 새 창조, 샬롬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적 방편으로 작용한다.

---

10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157-158.
11 Geoff Broughton, "Restorative Justice:Opportunities for Christian Engagement," 312.
12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167.

크리스 마샬은 성경의 샬롬과 언약 개념에 기초한 제어의 회복적 정의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한다. 마샬은 책『성경적 정의에 관한 소책자: 정의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접근』2장에서 성경적 정의 개념을 다섯 가지 근본 주제들-(1)샬롬, (2)언약, (3)토라, (4)행위와 결과, (5)사죄와 용서-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룬다.[13] 마샬은 정의 개념은 성경에 1,0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적 신학 사상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자질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통치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평화와 구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와 같은 정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14]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류와 화해하고, 그들을 품에 안기 위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회복적 사건이기 때문이다.[15] 따라서 보응적이고(retributive) 징벌적인(punitive) 세상의 정의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분히 구속적이고(redemptive) 재건하는(reconstructive)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16] 이런 맥락에서, 마샬에 의하면,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형벌은 보응적인 행위라기보다, 언약 백성과 온 만물의 궁극적인 구원, 평화, 새 창조를 성취하기 위한 '회복적인 심판(restorative punishment)'이다.[17] 따라서, 적용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범과 희생을 따라, 해를 가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경적 정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정의, 특히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보응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포된 다양한 양상들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

13 Chris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14 Chris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8-9.
15 Chris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61-62.
16 Broughton, "Restorative Justice: Opportunities for Christian Engagement," 315.
17 Chris Marshall, *Beyond Retribution: A New Testament Vision for Justice, Crime and Punish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1), 66.

정의가 보응적인 것이라기보다, 보다 더, 궁극적으로, 회복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어와 마샬은 성경적 정의가 가진 회복과 샬롬의 측면을 주로 신약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회복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구약성경의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III.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적방편

이사야서("야웨는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시온 백성과 온 만물을 향한 거대한 구원의 담론(mega-salvation-discourse)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적어도 이사야서의 21개의 본문이 패역한 백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기술하고 있다.[18]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사야서에서 서로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거대한 구원의 담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논자는 이 부분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다양한 양상이 시온 백성과 온 만물의 회복과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회복적 정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응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구속적 정의를 성취하는 신적·경륜적 방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논자는 성경적 정의와 관련하여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세 가지 양상-(1)시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2)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3)대속자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따라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18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는 본문들은 아래와 같다. 사 1:21-28, 3:13, 4:3-4, 5:1-9, 24-25, 6:9-13, 9:8-21, 10:1-4, 5-19, 20-23, 13:1-11, 24:1-3, 26:8-10, 30:27-33, 34:2-8, 48:9-11, 53:1-12, 63:1-6, 65:1-7, 66:15-17, 22-24.

1. 시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1) 시온 백성의 회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사야서의 많은 본문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시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룬다(1:24-28, 3:13, 4:3-4, 5:1-9, 24-25, 9:8-21, 10:1-4, 65:1-7).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 불의, 살인, 뇌물, 토색, 약탈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과 신앙 고백이 없는 외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로 인해 총체적인 부정함 가운데 있었다. 이와 같이 패역한 시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사야 1:24-28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 백성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정결케 됨, 회복, 구속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 25.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 그리한 후에야 네가 공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
> 니
>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 28.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
> [개역개정역]

이사야 1:24-28은 전체 이사야서의 서론으로서, 이사야서가 전개할 메시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시온은 과거에 한 때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였

던 아름다운 성읍이었지만, 당시 그곳은 부정하고 패역한 곳으로 변질되었다(21절).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였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았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지 않았다(22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성읍을 향한 대대적인 심판을 선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절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할 것을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한 원수와 대적은 누구인가? 알렉 모티어(J. Alex Motyer)는 이 대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거역한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조셉 블렌킨숍(Joseph Blenkinsopp)은 바로 앞 연에서 범죄와 패역함으로 질책 받았던 나라의 고관, 재판관, 종교적 지도자로 이해하였다.[19]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그 성읍과 백성의 부정함과 찌꺼기를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잡물을 제하여 버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과 그곳의 지도자들을 회복할 것을 말한다. 이사야 4:4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소멸하는 영으로 표현된다. 즉, 그것은 시온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오토 카이져(Otto Kaisr)가 잘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임박한 무시무시한 심판은 "그 성읍의 최종적인 파멸이 아니라, 성읍의 힘을 빼가고, 타락시키는 지도층 사람들에게서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다.[20] 비슷한 맥락에서, 윌리암슨(H.G.M. Williamson)은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해석하였다.[21] 결국, 25절이 밝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시온의 재판관과 모사들은 예전처럼 회복되고, 그 성읍은 다시 신실하고 공의로운 처소로 회복 될 것이다.

더욱 의미심장하게도, 27절은 시온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될 것을 예견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과 원수에게

---

19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93), 49;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The Anchor Yale Bible, 2000), 189.

20 Otto Kaiser, *Isaiah 1-12.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44.

21 H.G.M. Williamson, *Isaiah 1-5: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New Your: Bloomsbury, 2014), 144.

행하시는 신적 보복과 보응, 즉 시온의 부정함과 패역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이사야 32:16-17에 의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들 가운데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나타난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따라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시온 백성의 파멸이 아니라, 회복, 화평, 평화, 안정을 꾀하는 경륜적 방편으로서, 성경의 회복적 정의를 지지한다. 반면, 끝까지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사야 65:1-7은 이사야 1:21-28과 수미상관을 이루며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룬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패역을 일삼는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을 온전히 보응하실 것을 생생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 심판은 다음 66장에 묘사된 온 만물과 새 이스라엘의 창조를 위한 선행 조치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논리적 구조에서 볼때, 이사야 65-6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는 이사야 1:24-28에 기술된 '심판'과 '회복'의 주제 패턴과 일치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시온 백성의 평화, 구원, 새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도구로써,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성취한다.

(2)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함

이사야서에서 모든 시온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고, 이후 하나님의 회복과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사야 10:20-23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때를 기점으로 패역한 자들, 더욱 정확하게는, 정치·종교적 지도자들, 재판관들, 모사들,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될 남은 자들을 뚜렷하게 구분 짓는다. 다시 말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 시온 백성에게 임하지만, 그 와중에, 그리고 이후 "거룩한 씨,"

즉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
> [개역개정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시온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더 이상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양하게 될 것이다(사 6:11-12).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한 것처럼, 시온은 성읍, 토지, 시민이 총체적으로 파멸하게 된다. 하지만, 큰 나무가 베임을 당할지라도, 그 곳에는 그루터기가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이후 시온 성읍에 '남은 자,' 즉 '거룩한 씨'를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21절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모티프는 이사야 7:3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스알야숩(šᵉʾār yāšûb*:"남은 자가 돌아온다")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 11:11, 16, 28:5, 37:4, 31-32, 46:3에 반복해 등장하며,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사 1:27),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사 30:18),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신뢰하는 자들(사 30:15)을 일컫는다. 이사야 10:21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은 언어적·주제 면에서 이사야 1:27의 '돌아온 자들'과 연결되고, 그들은 공의로 하나님의 구속과 샬롬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차일즈(B.S. Childs)가 잘 설명한 것처럼, "참으로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시온에서 회개한 자들에게 해당한다. 남은 자들은 심판의 공포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확인받게 된다."[22] 결국, 이들은 "새 이스라엘의 중추를 이루는 자들"이 되고, 이사야 65-66장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영광, 샬롬, 새 창조를 누리게 된다.[23]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은 오직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 즉 거룩한 자들이다. 그때 그들은 그들을 친 강대국 앗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21절).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범죄한 전체 시온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살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패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영적·정치적 지도자, 재판관, 모사들을 무서운 형벌로 심판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통해 민족적인 정련의 과정을 겪게 되고,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백성,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심판의 시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증명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높임이 된다. 그는 온 세상에 절대적 왕권을 천명하게 될 것이다(사 5:16; 24:2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진노와 심판은 언약 백성의 회개, 평화, 구원, 그리고 온 만물의 새 창조를 성취하는 경륜적 방편으로서, 성경적 정의가 회복적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사야 10:5-19, 13:1-11, 19:23-25, 24:1-3, 26:8-10, 30:27-33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회복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본문들은 열방을 향한 지혜로운 경륜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열방의 회복을 성취할 것을 보여준다.

---

22 B.S. Childs, *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95
23 Otto Kaiser, *Isaiah 1-12, 242.*

(1) 앗수르의 교만과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사야 10:5-11절은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 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 6.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 7.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 8.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 …
>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 [개역개정역]

구속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우상 숭배와 패역함을 자행하였던 열방과 언약 백성-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선택하셨다(사 8:5-8; 10:5). 하나님은 앗수르 왕을 통해, 열방의 범죄뿐 아니라 언약 백성의 불순종, 타락함, 패역함을 심판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수행해야 할 앗시리아는 스스로의 계획과 오만함에 빠져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열국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다고 어리석게 자랑하였다(13절). 그러므로,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잘 설명한 것처럼, "앗시리아는 여호와의 명령과 의도를 간과하였고 거만함과 비겁한 무자비함으로 행동하였다. 즉, 선택받은 도구가 제국의 건방짐과 독자성을 주장하며 행동하였던 것이다."[24] 앗시리아는 그들을 통해 열방과 시온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앗시리아를 향해,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성취하신 후,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을 예고하신다. 결국, 이사야 36-39장이 보여주듯이,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를 향한 앗수르 왕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고, 인간의 불경건함과 오만함의 상징인 앗수르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만다. 앗수르의 심판에 관한 이 신탁은 모든 나라들과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앗수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복속되어 있음을 선언한다.[25] 이사야의 눈에,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에 불과하였다(5절). 앗수르 뿐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신탁(13:1-11)을 통해, 이사야는 온 열방과 역사의 진정한 왕이자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확증한다. 또한, 앗수르의 파멸을 통해, 유다는 회복을 예견하게 되고, 남은 자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26]

그렇다면, 앗수르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오직 심판과 파멸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교만, 오만한,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종말의 때에는 그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 이사야 19:23-25은 종말의 때에 성취될 열방의 회복과 축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

24 Walter Brueggemann, *Isaiah 1-39*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92-93.
25 Walter Brueggemann, *Isaiah 1-39*, 93.
26 존 골딩게이, 『이사야』, 윤성현 역(서울: 성서유니온, 2001), 127.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개역개정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앗수르는 북쪽에, 애굽은 남쪽에 각각 위치한 이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서로 간의 적대감으로 지속적인 정복 전쟁을 치러 왔었다. 초승달 지역을 가로질러 있는 왕의 대로(King's Highway)를 통해, 상업과 무역활동을 서로 활발하게 하며 이윤을 추구했던 교류는 부차적이었고, 과연 그들의 역사는 전쟁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장차 도래한 "여호와의 날(24절)," 즉 종말의 때에는 앗수르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종말론적 화해, 구원, 그리고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27] 적대적이었던 애굽과 앗수르는 과거 전쟁을 위해 사용하였던 그 대로를 이제 서로 간의 왕래를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그 대로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열방을 향한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이 나라들은 이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우주적 통치 아래에서, 한 때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던 열강들은 예배 공동체로 변화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성취하실 우주적인 화해와 구원을 열방에 전파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파멸과 종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과정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종말론적 회복과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

27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아래를 참조하라. Craig A. Blaising, "The Day of the Lord: Theme and Pattern in Biblical Theology," *Bibliotheca Sacra* 169 (2012), 3-19; Meir Weiss, "The Origin of the 'Day of the Lord': Reconsidered,"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7 (1966), 29-71.

(2) 에돔—회개하지 않는 악인들과 근원적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사야 34:5-12과 63:1-6은 에돔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거역하는 근원적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룬다. 선지서에서 에돔을 향한 비난과 심판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오바댜 1, 렘 49장, 겔 25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는 이사야 13-23장에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제외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사야 34:5-12에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다른 열방을 향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 5.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 그를 심판할 것이라
> …
>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 9.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 10.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 11.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 12.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
> [개역개정역]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철저한 원한과 반목의 관계에 놓였던 민족이다(창세기 25:30).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고 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동족을 파멸하는 바벨론을 간접적으로 도왔다(오바댜 1).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있던 극도의 미움과 반목은 선지자들이 다른 신학적 차원에서 에돔을 해석하도록 이끌었다. 즉 에돔은 단순히 열방 가운데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근원적인 악(ontological evil)'과 그 악함을 자행하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상징한다.[28] 정경 메시지의 구조를 볼 때, 이사야 33장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선지자의 간구를 다룬다면, 그 구원은 이사야 34장에서 악인들과 근원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동일한 신학적·주제적 패턴을 이사야 62-6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사야 62장은 시온이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찬란한 구원과 영광을 획득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어, 이사야 63장은 시온 백성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에돔에 대한 상징적 보복으로 기술한다. 악인에 대한 보응을 통해, 시온 백성들은 구원과 신원함의 종결적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이사야 65-66장의 새 창조의 장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사야 34장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묵시적인 이미지들—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짐,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림—과 함께 묘사된 것은 에돔이 단순히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초 창조와 첫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온 만물의 타락과 부패를 주도하였던 근원적인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의미심장하게도, 이사야 34장과 63장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그 어떤 미래의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34:10)." 근원적인 악에게는 그 어떤 자비나 회복의 기회가 허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빛은 완전한 빛일 수 없듯이, 근원적인 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론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피조의 영역이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완전한 새 창조는 도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악이 완전히 파멸될 때에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될 때에야,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는 완전히 확립될 것이다.[29]

---

28 Childs, *Isaiah*, 518-519.

이상에서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의 거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패역함과 자만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임을 살폈다. 그것은 열방과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왕 되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행위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반면, 근원적인 악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에돔 같은 자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여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근원적인 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대속자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사야 52:13-53:12는 메시아 종이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징계와 심판을 겪게 되는 대속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메시아 종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이 죄로 인해 겪어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대신 겪게 된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잘 보여준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52:15).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

29 Childs, *Isaiah*, 519.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개역개정역]

메시아 종은 언약 백성을, 더욱 정확히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심한 질고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4절에서 "그가 징벌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nāgûa*는 이사야 25:12와 이사야 26:5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문맥과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는 장면에서 사용된다. 반면, 이사야 53:4에서 "하나님께 맞았다"는 히브리어 동사 *mukke*는 이사야 5:25, 11:5, 14:6, 57:17에서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의 허물과 죄악, 애굽의 범죄, 바벨론의 패역함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각각 사용된다. 그러므로, 메시아 종이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고, 징벌과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메시아 종에게 임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누구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인가? 메시아 종의 범죄인가? 아니면, 언약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인가? 당대 많은 자들은 메시아 종이 자신의 범죄와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겼다(4절).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단언한다(5절). 특히, 이사야 53:8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암시하는 *nāgûaʿ* 동사는 메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이 다름 아니라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종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범죄와 죄악을 자행한 심판의 당사자가 겪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대신 겪는 '대속적 차원'의 심판과 형벌을 보여준다. 이 메시아 종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만 하는 신적 대리인(agent)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시무시한 고통과 슬픔에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난당하는 종은 시온 백성에게 임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30]

메시아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대속적 징벌과 심판은 시온 백성 가운데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먼저, 메시아 종은 새로운 씨(seed), 즉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킨다(10절). 다음으로, 메시아 종은 대속적 희생과 고통을 통해 백성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죄악된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킨다(11절). 특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이 메시아 종의 대속 희생과 고통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사 56-66장).

메시아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적 차원을 견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종의 대속적 고통과 희생은 범죄한 자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탁월한 지혜와 경륜을 표방한다. 특히,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회·종교적 지도자와 권력자들, 특히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였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피해를 당하였던 경건한 남은 자들, 즉 연약한 힘 없는 피해자들을 향한 회복적 정의를 보여준다. 많은 이들에게 구약에 기술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근거해 보복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범죄한 자들을 향한 보복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메시아 종의 대속적 희생과 회복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30 김명일, "God's Judgment through the Davidic Messiah: Paul's Use of the Suffering Servant in Isaiah 53", 「갱신과 부흥」 26 (2020), 23.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인자함(헤세드)가운데 아름답게 통제되고 있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의 회복과 샬롬을 지향하고 있다. 제어(Zehr)와 마샬(Marshall)은 신약에 기술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에 근거해 성경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 종에게 내려진 대속적 심판과 희생에 근거해, 구약에 기술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내포된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IV. 회복적 정의를 통한 시온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이사야서에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과연 시온의 회복에 어떻게 관여하고, 그것은 또한 열방의 선교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사야서의 거대 구원의 담론을 배경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먼저, 시온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시온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새 운명과 함께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 구속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사 42:6, 49:6).[31] 하지만, 안타

31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패러다임에 관하여, 오코이(James Chukwuma Okoye)는 아래의 네 가지 범주로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첫째, 구약의 선교는 보편주의(universality)의 측면, 즉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를 열방에 편만하게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원리는 구체적인 선교 활동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가졌던 선교적 의식과 책임을 함의한다. 둘째, 구약의 선교는 공동체적 선교(community-in-mission)를 함의한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존재가 하나님의 지식을 열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편만하게 되는 것을 내포한다. 셋째,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 측면(centripetal)을 내포한다. 이 원리는 이사야 2:2-5에 묘사된 것처럼, 모든 열방들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 시온에 이르고, 하나님의 교훈과 길을 배우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도덕적 유일신론을 전파하는 것"(moral monotheism)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구약의 선교는 원심적 측면(centrifugal)을 내포한다. 이 원리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시키는 선교를 일컫는다.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James Chukwuma Okoye, *Israel and The Nations: A Missio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aryknoll: Orbis Books, 2006), 11-12; 그 외에, 구약 성경의 선교에 관하여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윤희,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선교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학」 42 (2007), 38-41.

깝게도, 그들은 우상숭배와 다양한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청각장애인의 운명에 안주하였었다(사 42:18-21). 물론, 열방을 향한 선교와 나아가 만물의 구속을 위해 부름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대대적인 심판을 단행하신다.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은 드디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사 55:1-5, 61:1-11). 특히, 무서운 심판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돌아온 남은 자들이 메시아 종의 대속 희생과 죽음을 신뢰하여 죄사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은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주역이 된다. 의미심장하게, 이사야 61:6에서 이들은 더 이상 죄악과 슬픔과 저주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기름부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신분을 획득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때 시온의 남은 자들은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가교(架橋)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의 기름부음 가운데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전파하게 된다(사 66:18-20). 시온 백성의 선교를 통해, 열방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공동체로 세움 받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사 56:1-8). 이것은 시온의 회복 뿐 아니라 열방의 구속과 새 창조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열방에 다시 전파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선교가 성취되고, 영광을 받으신다(사 66:21). 따라서, 제임스 헤밀턴(James M. Hamilton, Jr)이 잘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32]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 백성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함으로써, 열방의 선교가 진행되고, 온 세상의 구속과 새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가 성취되도록 돕는

32 James M. Hamilton, Jr, *God's Glory in Salvation through Judgment: A Biblical Theology* (Wheaton: Crossway, 2010), 211.

신적 방편이 된다. 구속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기간을 거친 후, 토라와 안식일을 중시 여기고, 우상 숭배를 던져 버리며, 성전을 중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새 백성으로 세움 받게 되었다(스 9-10; 느 8).

둘째, 열방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열방에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앗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열방에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도록 이끄는 직접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교를 촉발할 뿐 아니라 그 선교를 열방 가운데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근본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를 성취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온 만물 가운데 새 창조와 샬롬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V. 나오면서: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논자는 본고를 통해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 즉 성경적 정의가 회복과 샬롬을 지향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 연구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또한 심판의 다양한 양상과 결과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성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오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과 온 열방의 회복을 구현하는 신적·경륜적 방편이라는 논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을 향한 통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여를 한다. 또한 이것은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열방을 향한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선교를 더욱

진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편임을 확인한다. 비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세상과 교회에 짙게 드리운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회복의 때에 그것을 통해 온 만물이 회복과 평화, 즉 샬롬을 누리고, 정의와 샬롬이 입 맞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참고문헌]

Amstutz, Lorraine S. "Restorative Justice: the Promise and the Challenge," *Vision* 14 (2013), 24-30.

Blaising, Craig A. "The Day of the Lord: Theme and Pattern in Biblical Theology," *Bibliotheca Sacra* 169 (2012), 3-19.

Blenkinsopp, Joseph.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The Anchor Yale Bible, 2000.

Broughton, Geoff. "Restorative Justice: Opportunities for Christian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3 (2009), 299-318.

Brueggemann, Walter. *Isaiah 1-39.*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Childs, B.S. *Isai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Hamilton, James M. Jr, *God's Glory in Salvation through Judgment: A Biblical Theology.* Wheaton: Crossway, 2010.

Johnstone, Gerry & Van Ness, Daniel W.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Devon: Willan Publishing, 2007.

Kaiser, Otto. *Isaiah 1-12.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Kaiser, Walter C. J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Marshall, Chris.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Intercourse:Good Books, 2005.

_____. *Beyond Retribution: A New Testament Vision for Justice, Crime and Punish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1.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93.

Okoye, James Chukwuma. *Israel and The Nations: A Missio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aryknoll: Orbis Books, 2006.

Weiss, Meir. "The Origin of the 'Day of the Lord': Reconsidered,"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7 (1966), 29-71.

Williamson, H.G.M. *Isaiah 1-5: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New Your: Bloomsbury, 2014.

Yoon, I Sil. "The Impact of Theological Foundation of Restorative Justice for Human Rights Protections of North Korean Stateless Women as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ological Studies* 75 (2019), 1-10.

김명일. "God's Judgment through the Davicid Messiah: Paul's Use of the Suffering Servant in Isaiah 53", 「갱신과 부흥」 26 (2020), 7-42.

김윤희.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선교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학」 42 (2007), 34-65.

발터 아이히로트. 『구약성서신학 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88.

존 골딩게이. 『이사야』. 윤성현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1.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손진 역. 서울: 한국 아나뱁티스트 출판사, 2010.

[Abstract]

God's Anger and Judgement, Does It Achieve the Punitive Justice, or the Restorative Justice?

Yun Gab Choi
(Ko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ld Testament theolog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pprove that the biblical justice is pursuing to the restorative justice based on the thorough investigation of God's anger and judgement in the book of Isaiah. This study will provide the new academic possibility to appreciate the restorative justice from the angle of the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eyond the theoratical limitation which solely argues it based on the Christology in the New Testament. Also, it will give a chance to interpret God's anger and judgement, the biblical theme which has given rise to the enormous amount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in the Christian history, from the new perspective of the restorative justice and its influence on the restoration of Zion and mission of the nations.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comprises of three main parts. Firs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God's anger and judgement in the Book of Isaiah, we will define the point that the biblical justice prefers the restorative justice to the punitive justice. Second, we will explicate a number of texts in Isaiah which contain the theme of God's anger and judgement in terms of the restorative justice(Isa. 1:24-28, 10:5-11, 20-23, 19:23-25, 34:5-12, 52:13-53:12). Finally, within the mega-salvation-discourse of Isaiah, we will see how God's anger

and judgement contributes to Zion's restoration and the mission of the nations as the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will provide the new academic and practical possibility to interpret God's anger and judgement from the restorative justice.

Key Words: God's anger and judgement, Restorative justice, Isaiah, Punitive justice, Restoration of Zion, Mission of the nations